

“전세계 감독들, 자신 커리어에 한국영화 갈망”

칸 영화제 감독 주간 프로그램머 “韓 영화산업 그 어느때보다 풍성”
롯데 높은 佛국립영화영상센터는
영진위와 공동라운드 테이블 눈길
“몇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일”

“한국영화에 대한 대우, 확실히 달라졌어요.”

18일(이하 한국시간) 막을 연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영화관계자들이 입 모아 말하는 한국영화의 현재적 위상이 다. 2019년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부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등 한국 콘텐츠의 연이은 글로벌 흥행이 한국영화의 든든한 디딤

돌이 됐다고 이들은 말한다. 여기에 한국영화와 협업을 원하는 해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어 더욱 기대감이 커진다.

●“자부심 강한 프랑스 시선까지”

이 같은 상황을 확연하게 드러낸 특별한 무대가 칸에서 열렸다. 한국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와 프랑스국립영화영상센터(CNC)가 21일 함께 개최한 자리다. 제작 협업과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이후 영화의 방향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라운드 테이블’로, 자국 영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CNC가 타국과 이를 개최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칸을 찾은 한국영화 관계자들은 말했다.

박기용 영진위원장은 “롯데 높기로 유명한 CNC가 영진위와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만 보더라도 한국영화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여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던 일”이라고 귀띔했다. 칸을 방문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배장수 부집행위원장은 “과거 칸에서는 한국영화가 해외 영화관계자 및 바이어에게 다가가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올해에는 해외 관계자들이 먼저 한국영화를 찾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할리우드 향한 갈망이 이제 한국으로”

외신들도 잇달아 한국영화 관련 이슈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또 이번 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인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서 공개된 ‘헌트’가 스크린 인터내셔널과 버라이어티 등 현지 영화제 소식지에 표

지를 장식했다. 광고성 기획이지만 영화제 개최 초반 연일 소식지 표지에 등장한 것은 그만큼 한국영화의 ‘입김’이 세졌음을 보여준다. 일부 소식지는 한국영화의 성과와 미래 등을 비중 있게 담아 내기도 했다.

아시아영화 전문가로, 칸 국제영화제 비공식 부문인 감독주간에서 활동하는 제레미 세게(Jeremy Segay) 프로그램머는 버라이어티에서 “한국영화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감독들이 한국의 재능 있는 이들과 협력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거나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면서 “과거 세계 모든 영화 제작진이 자신들의 활동 이력에 미국영화를 남기고 싶어 하던 갈망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칸(프랑스) | smlee@donga.com



6인조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

하이브 첫 걸그룹 ‘르세라핌’ ‘학폭 논란’ 김가람 활동 중단

그룹 방탄소년단의 하이브가 배출한 첫 걸그룹으로 관심을 얻은 6인조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이 당분간 5인조로 활동한다. 김가람이 5월 초 데뷔 전부터 학교폭력 가해 논란에 휘말리면서 결국 그룹 제외한 다섯 멤버로만 무대에 나서기로 했다. 활동을 본격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 이어서 르세라핌은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최근 김가람은 중학생 시절이었던 2018년 친구 A씨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모았다. 이에 대해 소속사 쏘스뮤직은 “김가람도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면서 “허위사실 중 증거가 확보된 사안에 대해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며 밝혔다.

하지만 그의 학교폭력 가해 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결과 통보서 사진이 인터넷에서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더욱이 르세라핌 데뷔 이전인 지난달 21일 A씨가 범무법인을 통해 피해 관련 자료를 하이브(쏘스뮤직)에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악의적 음해”라고 주장해오던 소속사도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그럼에도 소속사는 “A씨는 학교에서 탈의 중인 친구의 속옷만 입을 사진을 무단 촬영해 다른 친구 명의의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다”며 “이에 격분한 김가람 등 친구들이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신체적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잘못을 시인했지만, 그 행동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게 항의한 친구들을 가해자로 지목해 학폭위에 회부했고, 본인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범죄도시2’ 5일만에 300만 ↑ …1000만 전망

영화 ‘범죄도시2’가 개봉 5일째 관객수 300만 명을 돌파했다. 일각에서는 1000만 관객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와 영화계 안팎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22일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18일 개봉한 ‘범죄도시2’는 이날 오전 11시50분경 누적 관객수 300만 명을 넘겼다. 개봉 후 첫 주말인 전날 하루에만 전국 2498개 스크린에서 103만7000여명의 관객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생충’ 이후 일일 관객수 100만을 넘긴 첫 영화로도 기록됐다. 영화는 형사 마동석이 최강 ‘빌런’ 손석규를 잡는 과정을 그린다.

가수 이정, 제주도서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

가수 이정(이정희·41)이 22일 결혼했다. 가요계에 따르면 이정은 이날 오후 제주 애월 모처에서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다. 같은 날 아내를 생각하며 만든 신곡 ‘아이 라이크 그대’(I Like 그대)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KBS 2TV 예능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을 당시 신곡의 일부분을 공개하며 “아내를 처음 만난 직후 느낀 수줍음과 설렘을 담은 노래”라고 소개한 바 있다.

유승준, 한국 입국비자 두번째 소송 패소에 항소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45)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앞서 20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이정재 인기’ 뿌듯한 정우성…“한국 배우들 축제의 중심”

‘헌트’ 이정재의 사람들

4번고사 끝 출연…23년만에 호흡
세계적 조명 받는 친구와 기쁨 만끽
연인 임세령 부회장도 조용한 응원

이정재의 첫 연출작인 영화 ‘헌트’는 정우성과 진한 우정을 발판 삼아 완성됐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의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서 20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상영하며 나눈 두 사람의 뜨거운 포옹이 더욱 의미를 더하는 이유이다.

이정재와 정우성은 1998년 ‘태양은 없다’ 이후 23년 만에 한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다. 그 동안 두 사람은 한 작품에 함께 출연하기를 고사해왔다. 작품 자체보다 자신들의 사적인 관계에만 시선이 집중될 것을 우려한 탓이다.

‘헌트’를 함께 하기까지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우성은 네 번이나 출연을 고사했다. 하지만 ‘헌트’에 쏟는 이정재의 노력과 진심을 옆에서 지켜보며 결국 출연을 결정했다. “깨칠지언정 한 바구니에 함께 담기는 계란”이 되기로 했다. 그런 정우성에 화답하며 이정재는 “정우성이 가장 멋있게 나오는 영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나섰다.

이들은 글로벌 스타로서 영화제를 함께 만끽하고 있다. 21일 칸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난 정우성은 ‘오징어게임’ 이후 이정재에 대해 쏟아지는 세계적 관심을 자신의 행복처럼 기뻐했다. 이정재가 이룬 성과가 곧 한국 콘텐츠의 것이라 믿고 있다.

정우성은 “예전에는 해외 영화제에서 한국배우들이 돌아다녀도 별 관심을 받지 못했다. 남의 집 잔치를 구경하는 기분이었다”면서 ‘오징어게임’의 성공이



영화 ‘헌트’의 주역인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왼쪽부터)가 20일(한국시간) 프랑스 칸 팔레 데 페스티벌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후 “한국배우들이 완벽하게 축제의 중심에 있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이정재는 취재진에게 “중요한 건 현재의 인기가 아닌 앞으로의 기회”라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의 기회를 발판삼아 한국배우들이 조

금 더 공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재는 연인인 대상그룹 임세령 부회장과 함께 칸을 찾아 눈길을 끌고 있다. 2015년부터 8년째 이정재와 교제 중인 임 부회장은 ‘헌트’가 공식 상영

된 칸 팔레 데 페스티벌의 루미에르 대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연인을 응원했다. 임 부회장은 이정재에게만 오롯이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도록 연인의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영화를 관람했다.

칸(프랑스) | 이승미 기자

싸이월드 ‘추억의 도토리 강탈곡’ 재소환

2000년대 당시 미니홈피 배경음악
유행 ‘우산’ 싸야 ‘사랑의 인사’ 인기

추억의 ‘도토리 강탈곡’이 다시 뜬다.

2000년대 대표적 SNS 플랫폼인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BGM(배경음악)으로 사랑받은 노래인 ‘도토리 강탈곡’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싸이월드가 다시

문을 연 뒤 옛 이용자들이 추억 속 노래를 찾아듣고 있다.

‘기다리다’, ‘비밀번호 486’ 등으로 이미 싸이월드 감성을 획득한 유행하는 힙합그룹 에픽하리와 함께 부른 ‘우산’ 등도 히트곡 목록에 올려놓았다. 최근 싸이월드가 재오픈한 뒤 유튜브와 SNS 플랫폼 등에서 ‘재소환’됐다. 1월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도토리 페스티벌’ 무대 영상



유행

도 꾸준히 조회수를 늘리며 110만 뷰를 넘겼다. 3인조 걸그룹 싸야(김연지·이보람·남규리)의 ‘사랑의 인사’도 최근 ‘놀면 뭐하니?’에 등장하면서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다. 노래는 여성 보컬그룹 WSG워너비의 멤버를 뽑는 오디션 경연곡으로 채택됐다. 멤버 이보람이 2004년 가창해 싸이월드에서 유행한 K

BS 2TV ‘폴하우스’ OST 곡 ‘처음 그 자리에’도 유튜브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옛 싸이월드 이용자들이 음원을 다시 찾고 있는 SG워너비의 ‘내 사람’, 프리스타일의 ‘Y’, 장나라의 ‘스위트 드림’ 등도 미니홈피 BGM으로 쓰이면서 플랫폼의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22일 싸이월드제트 관계자는 “스타뿐 아니라 많은 이용자들이 각종 SNS를 통해 싸이월드를 언급하면서 ‘도토리 강탈곡’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